

석유화학, 무역수지 흑자 효자품목

중간원료 · 합섬원료 · 합성고무 ... 섬유 · 화학기계도 무역수지 흑자

10년 전과 비교할 때 자동차부품, 광학기기 등은 무역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탈바꿈한 반면, 신발 및 전자응용기기 등은 무역수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무역협회는 6월21일 발표한 <1995-2005년 품목별 무역수지 변화> 보고서에 따르면, 10년만에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대표품목은 자동차부품, 광학기기, 합섬원료, 공기조절기 등이다.

자동차부품은 1995년 무역적자가 8억4000만달러를 나타냈으나 2005년 1-4월에는 13억45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.

광학기기는 8억9000만달러 적자에서 6억4000만달러 흑자로, 합섬원료는 7억8000만달러 적자에서 5억6000만달러 흑자로, 공기조절기는 4억달러 적자에서 3억7000만달러 흑자로 전환됐다.

반면, 전자응용기기는 1995년 흑자가 37억5000만달러에 달했으나 2005년 1-4월에는 5억6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.

의류는 37억달러 흑자에서 1억1000만달러 적자로, 신발은 11억5000만달러 흑자에서 5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.

이밖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무역수지 효자품목은 기계류, 합성고무, 사무기기, 섬유 · 화학기계, 아연제품, 석유화학 중간원료 등이다.

반면, 수산물, 산식물, 이륜자동차, 전선, 가구, 조명기기, 가죽 등은 적자로 전환됐다.

<화학저널 2005/06/22>